

‘민주기사의 날’ 택시 200대 시위 재현



20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금남로 구간에서 열린 ‘민주기사의 날’ 행사에서 광주지역 200여 명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29년 전 5·18 민주항쟁 당시의 차량 시위를 재현하고 있다.

이제 5·18 30 주년을 준비하자

5월, 이젠 시민들에 돌려주자

5·18은 5월단체 전유물 아니다

단체간 분열·진보 진영 시국 이슈 시민들 외면 脫 정치행사... ‘5월정신’ 광주발전 동력 삼아야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는 화해와 협력 속에 시민 주도형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기존 틀에서 벗어나 탈(脫)정치, 탈(脫)이념적인 행사로 추진해 전국화·세계화를 앞당기고 5월 정신을 광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민주묘지 참배객 수는 11만3천7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천2천599명보다 40.9%(7만8천849명)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참배객 수는 1천737명으로 지난해 1천237명보다 40.4%(500명) 증가했다.

또 지난 17일 열린 29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행사장은 1만 명(추정) 이상 모여 거리를 가득 메웠던 예년과 달리 4천여 명(추정)만이 참석했다. 5월 민주항쟁이 아시아 개도국엔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아이코노믹 자리매김 했지만 5월 관련단체 등의 분열과 갈등 속에 정착 시민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30주년 기념행사는 화해와 협력 속에 정치·이념 등 탈이데올로기적 행사 위주의 시민주도형 행사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를 둘러싼 관련단체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현상공모 등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학교·직장·기관·종교단체 등과 연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등 참여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또 특정 시민사회단체 또는 5월 관련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광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정관 교수는 “시민들이 배제된 5·18 기념

행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5월 정신과 광주미래 발전에 초점을 둔 시민 주도형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선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의 틀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 행사 기획 단계부터 각 학교나 직장 등에 공문을 보내 이들이 원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묻는 것도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전남대 5·18 연구소 박만규 소장은 “5·18 민주항쟁을 소개하면서 광주만 강조하는 것은 소통의 한계가 있다. 4·3사건, 부마항쟁 등도 해방 이후 민주질서를 세우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 노력의 산물”이라며 “이젠 이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선 모두 하나가 되어 준비기간을 여유있게 갖고 폭넓은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808) 김장두



LP가스통 교체 ‘핑’ 3명 부상

1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송모(여·58)씨의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집주인 송씨와 가정용 LP가스통 교체를 도왔던 직장 동료 강모(43)씨 등 3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행자 보호”

대법원 판결
과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13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교차로에서 택시를 끌고 우회전하던 중 과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김모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2주의 치료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대 길러낸 체육교사 선처

광주지법, “올림픽 금 기어” 형량 혐의 선고유예
이용대 선수를 길러낸 현직 교사가 형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키워 국위를 선양한 점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0일 배드민턴 용품비 일부부 배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체육교사 A(여·39)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도한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여교수 살해범 20년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20일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공 박모(2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범행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참혹한 점, 강도피해자들이 대부분 혼자 사는 여성인 점,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 4일 새벽 0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김모(여·52) 교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와 연해 강·절도 행각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로 근무하면서 선수훈련과 함께 배드민턴 용품 구매,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나 늘 예산부족에 허덕였다. 이에 A씨는 2002년 9월 25일부터 1년간 배드민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용품을 샀다가 일부를 돌려주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9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임내현 변호사는 “선고유예는 형법상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으로, 법에도 따뜻한 가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실 압수수색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대단지 방경철청과 함께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단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6시께부터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실을 포함한 서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와 대단지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라면상자 3개 분량의 회계장부와 플래카드, 회의록, 통장 등을 압수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이내 향해 던진 술병 ‘앗! 손님이!’

광주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 술병을 던졌으나 이 술병이 애꿎은 손님의 얼굴에 맞는 바람에 경찰서행. ○경찰청 수사과 20일 식사 중 있던 여성 손님에게 술병을 던져 상처를 입힌 장모(50·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9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열리는 아내(45)와 딸따름을 하던 중 식탁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져 아내의 뒤편에 있던 손님 김모(여·25)씨의 얼굴을 맞힌 혐의.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아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술병에 화가나 술병을 집어들었는데, 경찰에서 “고의가 아니었다. 김씨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데이터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세/월봉	대외이사 010-7578-7525	아파트/빌라	박경원이사 010-2611-5598	주책/세개밭	이영철부장 010-3633-9011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평	층수/층	면적	최저가
송정동 대127,2175	5912	3982	20/8	1933	9811
신안동 대127,2191	6852	4922	24	13/10	5299
회동 대82,2147	4832	3922	22	12/1	1942
월봉동 대72,2155	2982	2982	20/8	1912	7272
신안동 대87,2208	6982	4982	22	15/14	1918
신안동 대67,2153	3932	1932	30	15/13	1912
노안동 대683,2203	5972	3922	20/8	1933	9811
오정동 대131,2159	4912	2932	22	4	2982
송정동 대1138,2199	1119	62	15/11	1912	7272
송정동 대137,2201	1982	8972	33	15/4	1912
회동동 대83,2174	3982	1952	33	15/4	1912
월봉동 대638,2137	5192	2392	34	15/12	1942
월봉동 대145,2131	9912	5912	34	15/14	1932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2009년 윤달 5월에 개장하실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폐가 벗겨진 묘, 동결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 간의 상호부조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하게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든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근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